

## 박정익 선배



metro경제

김서현 기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장례식장을 다녀갔고 밤을 새웠고 장지를 따라갔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추모인파였다.

박정익 선배는 지금 회사로 나보다 며칠 먼저 온 사람이었다. 명함을 찾던 날 처음 만났다. 때마침 점심 시간이어서 명함을 찾곤 함께 추어탕을 먹으러 갔는데, 술고래였던 나는 그만 말실수를 했다.

“주량이 얼마나 되니?”

“저 솔직히 취해본 적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때까지는 취해본 적 없었다. 나는 ‘이야, 애 좀 봐라?’의 ‘애’가 됐다. 가뜩이나 맛있는 술과 다정한 사람을 좋아하는 나는 곧 선배와 술 마시는 사이가 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매번 선배가 자신의 사람으로 날 넣어줬다. 선배는 늘 먼저 연락을 했다. 어느 날은 내 출입처와 같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불러냈고, 어느 날은 그냥 좋아하는 후배들 술 사주고 싶다고 불렀다. 나는 선배가 부르면 늘 기분 좋게 나갔다. 만나고 나면 내게 좋은 일이 있음 있었지, 달리 나쁜 일이 없었고 기분 좋게 취해 집에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고서 지내기를 일 년여 되기 전, 나는 고약한 위장병에 걸렸다. 술만 마시면 가뜩이나 기분이 좋아져 음주 가무를 즐기는 판국에 위장병에 걸려버리니 더는 술 잘 마신단 말을 할 수가 없는



선배는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사랑하지만 축구를 가장 좋아했다. 올해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를 뛰지 못 하는 것을 그렇게나 아쉬워했는데, 보지도 못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처지가 됐다. 그렇게 한순간 술 못 마시는 사람이 되어버렸더니, 정익 선배는 술 마시는 자리면 매번 내 성대모사까지 해가며 “애 대박이러나니까? 전 술 취해본 적이 없어요~ 이리저 뭐냐?”라며 놀렸다. 제발 그만 하면 안 되냐고 빌었지만 선배는 실컷 장난을 쳤다.

선배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때가, 선배가 나와 동갑인 다른 기자를 불렀고 내가 또 같은 나이의 사람들을 부르며 동갑내기 네 명 모임이 만들어졌다. 선배는 자기가 아끼는 후배들끼리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한 고깃집을 예약해줬

다. 괜히 선배가 끼면 불편할 거라며 정작 자기는 슬쩍 빠진 채 고기값을 흔쾌히 냈다. 그때 우린 신이 나서 이것저것 다 시켜 먹었는데, 다 먹고 보니 돼지고기 값만 15만원이나 됐다. 여자 넷이서 15만원어치 돼지고기를 먹은 후부터 선배는 우릴 “이 돼지들아! 이 돼지야!” 하고 부르기 시작했다. 맛있었냐 물으며 ‘돼지들아!’ 하는 선배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뿌듯함과 애정이 느껴지는 미소였다.

선배는 살면서 만난 많은 기자들 중 특출나게 눈에 띄었다. 10여 년에 가까운 기자 생활 동안 ‘정말 기자구나!’ 싶



박정익 선배

은 사람은 생각만큼 많지 않았는데, 선배가 그랬다. 유쾌했으며 성실했고, 늘 열정적이었고 후배들을 아꼈다. 매번 만나는 후배들을 위해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에게, 특히 후배에게 도움 될 법한 사람을 들며 “내가 너 잘 말해줬다”고 말했다. 늘 명망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취재원으로 소개해주고 도움을 줬다. 솔직히 나는 그저 늘 생각만 할 뿐, 직업 있는 룬펜이건만 선배 덕에 많은 사람에게 ‘장래가 촉망 되는 후배’가 됐다. 내 행동 반경 내에서는 만날 일 없는 사람들도 만났고 좋은 기회도 잡았다. 하다 못 해 회사 당직까지 선배 다음 차례가 나여서 내가 잇은

듯 하면 던지시 일러줬다. 선배 덕을 이렇게 사소하게까지 많이 봤다. 그는 그러면서 후배가 하는 말도 진지하게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선배 잘못은 아니어도 오해 할 법한 일이 있어 그런 말을 해서는 되겠냐고 눈 치켜 뜨고 버럭거렸더니 선배는 자신이 잘못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어린 사람 말이라고 무시하지도, 우습게 보지도 않았다.

나는 선배가 좋았다. 선배 특유의, 괜히 남 불편할 격식은 차리지 않으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은 생색을 내는 게 참 재미있었다. 삼각지 빵집의 소보로빵을 잔뜩 나눠주며 “이게 그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빵이라더니 잔뜩 생겼지 뭐냐?” 하는데, 회사로 오는 김에 일부러 들러 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빵이었고 어느 뎀 술이었다. 선배를 보며 속으로 후배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이 정익 선배처럼 ‘참기자’ 면서 다정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 후배 챙기는 선배가 워낙 멋있길래 어느 때부터 나도 따라 하려 했더니, 세상에나. 후배 챙기며 내 일 하는 게 그렇게 고된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어느 날은 “너희는 기사나 잘 써!”라더니 자신이 고된 일을 맡는 것을 보고 나도 꼭 저 말을 언젠간 한 번 따라해야지 하고 속으로 결심하기도 했는데, 여태 한 번도 못 써먹었다. 그릇이 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게 참 선배가 싶다.



2023년 축구대회 연습 중이었던 때 박정익 선배의 모습(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정익 선배는 정익 선배처럼 떠났다. 세상을 떠난 날 현실감이 없었다. 정익 선배가 떠난 것은 사실 질나쁜 농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

늦게 일어난 휴일, 잠에서 깬 직후 소식을 듣고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잠들었다. 꿈은 현실, 현실은 꿈, 그냥 도피했다. 나는 꿈에서 커다란 어항에 그동안 키우고 떠나보낸 수많은 열대어들이 함께 헤엄치는 풍경을 봤다. 원래대로라면 절대 마주쳐서도 안 될 열대어들이 평화롭게 한 곳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그래서 꿈인 것을 알았다. 나는 죽음으로 떠나간 내 열대어들이 그림단 생각을 하며 억지로 계속 잠을 자려고 애썼다.

다음 날, 해가 뜨는 이른 아침 남들은 어딘가로 놀라가는 일요일 터덜터덜 벗꽃잎 섞인 바람을 맞으며 장례식장에 갔다. 장례식장 앞에서 '박 정 익'이라는 글자를 마주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글자가 왜 여기에 있지? …… 절을 하면서도 내가 여기에 왜 있지? 여긴 어디지? … 집에 와서는 또다시 아주 긴 시간 잤다. 나는 정익 선배와 축복하고 축하할 자리에 함께 있고, 누군갈 떠나보내며 힘들어하는 자리에 또 같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선배를 떠나보내는 자리에 내가 갈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선배가 가는 자리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다. 가라 한 사람 없는데 장지까지 따라간 1년 차 후배들이 있었고 바닥을



파주시 서현공원에 잠든 선배의 모습. 선배 성격을 생각한다면, '아, 여기 이름이 왜 이러냐' 고 웃었을 것이다.

치며 통곡한 수십 년 연차의 선배들이 있었다. 선배가 가고서 며칠 짓궂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 회사에서 하는 추모식, 나는 갑자기 안경이 툭 떨어지더니 다리가 날라갔다. 휴가 갔다가 하루 만에 귀국한 사람부터 접촉사고 차량 사이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한 사람까지, 선배가 마치 "이게 그리 큰 일이냐?" 말하고 싶은 것 마냥 크고 작은 난처한 일을 맞닥뜨린 사람이 많았다. 꽃잎 흩날리는 봄, 정익 선배는 그렇게 떠났다. 다정했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장난기 많고 짓궂었던 선배는 그렇게 갔다.

선배가 떠나고 두어 달, 이제 더는 난데없이 떠올라 눈물이 나거나 하는 일이 없는 어느 날이었다. 이동하던 중 깜빡

졸았는데, 꿈에서 나는 휴대전화로 선배에게 전화를 해서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었다. "선배, 연락 왜 이렇게 늦냐고 혼내더니 정작 본인이 연락 안 보는 건 무슨 일이지요? 풋살에서 제가 활약한 건 보셨어요?" 그 말에 수화기 넘어 누군가가 말했다. "야, 나 다 봤어 돼지야!" 덜컥이는 버스 차창에 놀라 깬 나는 현실인가 싶어 열린 휴대전화를 봤다. 당연히 꿈이었다. 그래, 보고 있겠지. 웬지 실실 웃음이 났다.

선배 보고 싶습니다. 🍷

메트로경제 김서현 기자